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곶 뉴스레터

No.4
2020.겨울

발행일 2020.12.29 • 발행처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곶 • T 064.784.9446 • www.ramsar.co.kr

CONTENTS

02

동백동산습지센터

동백동산의 겨울 소식

03

선홍장터

동백기름

04

동백동산

남방남색부전나비, 그물등개미
겨울눈, 남오미자



05

선홍생태관광

06

마을 이모저모

08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곶



동백동산습지센터의 겨울소식

동백동산 소리풍경 콘텐츠를 만들며~

동백동산 숲에는 다양한 소리를 내는 친구들이 많답니다.

1월이 되면 봄을 깨우는 산개구리 울음소리를 시작으로 이른 아침부터 재잘대는 동백동산의 텃새인 동백새소리를 비롯해 여름이면 이 곳 저곳에서 들리는 풀벌레 소리, 바람결에 스치는 나뭇잎소리, 가을이면 잘 익은 도토리가 푹 하고 떨어지는 소리, 비가 올 때면 빗방울 소리 등 동백동산 숲의 소리풍경은 정겹기만 하답니다.

동백동산은 이런 자연에 소리를 듣는 소리풍경콘텐츠를 개발하고자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와 (주)에코샵홀씨의 도움을 받아 동백동산 소리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새소리, 곤충소리, 풀벌레소리 등 다양한 소리를 담은 교구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백동산 습지센터는 해설사님들과 함께 소리 교구재를 활용한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구체화 한 후 동백동산의 소리풍경 콘텐츠가 담겨진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백동산 소리풍경 콘텐츠 개발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리에 대한 경험을 갖도록 하고 청각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는 소리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여행자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감동을 주어 자연의 소중함을 재인식 하는 것입니다.



동백동산 탐방객 현황

(단위: 명)

|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합계 |
|----|-------|-------|-------|-------|-------|-------|-------|-------|-------|-------|-------|--------|
| 인원 | 3,850 | 2,886 | 3,024 | 3,029 | 3,506 | 3,190 | 3,034 | 3,266 | 2,123 | 4,967 | 5,879 | 38,754 |

고소하고 향이 좋은 동백기름

고소하고 향이 좋은 동백기름 소개합니다.
 제주겨울의 대표 꽃이라면 단연 동백꽃입니다.
 동백꽃은 12월에서 4월 사이에 피었다가 통꽃으로 떨어지고 나
 면 그 자리에 동백나무 열매가 달립니다.
 작은 사과 같기도 하고 자두 같기도 하고 석류같기도 한 모양새
 가 보기 좋아 손으로 만져보면 열매는 과일처럼
 무르거나 하지 않고 돌처럼 단단합니다.



여기서 더 익으면 벌어지고 벌어진 열매 사이로 씨앗이 떨어집니다.
 이 씨앗을 주워서 손질하고 말리고 삶고 말리고 볶아 착유한 기름
 이 동백기름입니다. 동백기름은 예로부터 머릿기름으로 사용되어 왔
 고 민간요법으로 감기나 천식으로 인해 기침을 할 때 한 숟가락씩 먹
 기도 했던 오일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건강학적으로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찾는 분이 많습니다. 발연점이 높아 전 부칠 때, 계란
 후라이 등 각종 요리에 사용하며, 피부보습과 진정작용에도 좋은 것으로 밝혀져 화장품으로도 많이 쓰여 지고 있
 어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동백기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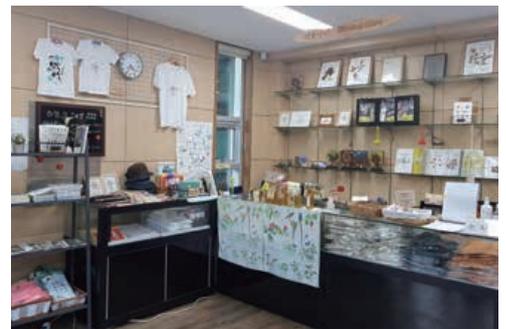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피부가 거칠어지고 건조할 때, 감기로 인해 기침할 때도 동백기름을 이용하시면서 건강
 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동백동산 선홍 장터에 오시면 동백기름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 064-782-9448)

선홍장터 소식

① 선홍 장터 겨울 소식입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모두들 힘든 한해였습
 니다. 동백동산 습지센터 또한 임시휴관이 되는
 관계로 주말장터 운영이 거의 마비되었고 장터
 매출 또한 저조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임시휴관이 해제되어 새로 문을 연다는
 마음으로 장터 내 진열장들을 재배치하고 상품들
 을 진열하여 탐방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2020년 모두들 마무리 잘하시고 2021년 새롭게 준비하는 선홍 장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매해 운영되는 주말장터에도 함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매할 농산물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문의 전화 064-782-9448)

② 동백동산 브랜드 상품 소개해 드립니다.



동백동산 손수건



제주어 꽃자왈 빙고(6종)



에코백



배지 3종



재생노트

공생일까? 기생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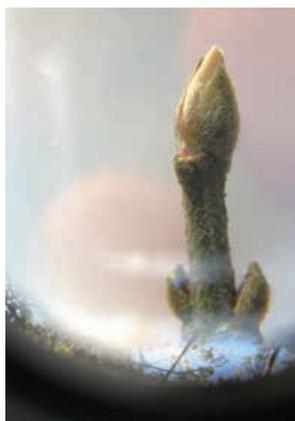
화창한 가을의 아침 누군가 종가시나무 위에 살포시 앉아 혼자만의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다. 바로 한창 몸을 말리고 있는 남방남색부전나비이다. 4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지만 햇빛

을 좋아 하여 대부분 5~6m 높이의 나뭇잎 위에 앉기에 관찰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암컷은 맑은 날 정오에서 오후 2시경까지 낮은 위치의 그늘로 내려와 알을 하나씩 낳는다. 이 알이 애벌레로 성장하게 되면 종가시나무에서 잎을 뜯어 먹는데 이때 그물개미들이 이 애벌레의 몸 위에 올라가서 말벌이나 거미와 같은 천적들로부터 지켜준다. 어찌 보면 이들은 공생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 되었다. 애벌레는 자신을 지켜주는 그물개미들에게 보답으로 당분과 아미노산이 듬뿍 든 액체를 분비해주는데 실험결과 이런 꿀물을 받아먹은 그물개미들은 다른 그물개미들에 비해 애벌레의 주변을 떠나지 않고 덜 돌아 다녔다. 그 이유는 꿀물 속에는 개미들의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억제시키는 물질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물개미들이 애벌레에게 충직할 수 있도록 조절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관계는 과연 공생인가, 기생인가?

* 그물개미 [사진출처: 한계례 환경생태 전문 웹진 - 조흥섭기자 기사 내]

나무들의 겨울눈 이야기

가을이 오고 찬바람이 불면 단풍이 졌던 나뭇잎이 하나둘 떨어져 앙상해진 가지만 남습니다. 물론 소나무처럼 나뭇잎이 남아 겨울을 나는 사시사철 나무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



는 많은 나무들은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내놓은 채 겨울을 나는데 자세히 보면 이 앙상한 가지 끝에도 봄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겨울눈' 때문이지요.

겨울눈은 나무가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 만든 눈을 말한다. 나무들의 외투인 셈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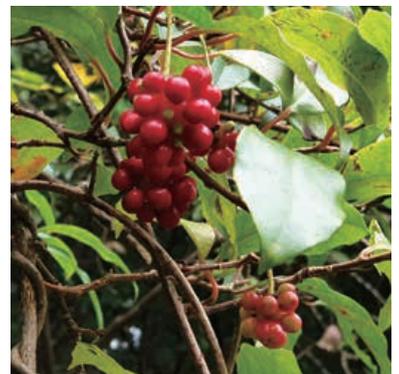
화려한 봄날을 꿈꾸는 나무일수록 겨울눈 보호에 가장 많은 공을 들입니다. 겨울눈은 용도에 따라 꽃눈과 잎눈으로 나눕니다. 꽃눈과 잎눈은 겉모양으로 쉽게 구별



할 수 있습니다. 겨울눈이 둥글면 꽃눈, 길고 뾰족하면 잎눈입니다. 꽃눈은 그 안에 꽃 조직을 싸고 있으므로 둥그스름합니다. 잎눈은 그 안에 잎 조직을 옆으로 말고 있으므로 길고 뾰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무들의 겨울 패션 겨울눈입니다.

오미자의 사촌 남오미자

이젠 날씨도 제법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따뜻한 오미자차 한 잔이 그리워지네요. 다섯 가지 맛이 난다하여 "오미자"라는 이름이 붙은 오미자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식물이지만 남오미자는 다소 생소함을 줍니다. 열매의 모양도 오미자와 달리 마치 큰 공 하나에 여러 개의 작은 공을 붙여놓은 듯 아주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동백동산을 걷다보면 빨갛게 무르익은 남오미자의 열매가 꼭 한 개 따고 싶은 충동을 줍니다. 오미자와 마찬가지로 효능은 다소 떨어지지만 약재로 사용하는데 남오미자의 줄기에는 점액이 많아 제지용 접착제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상록활엽 덩굴성 나무인 남오미자는 3m정도 자라고 대부분 암수가 딴 그루이지만 암수가 한 그루인 나무도 있습니다. 오미자 사촌을 찾으러 동백동산을 걸어보세요.



♫ 마을 달력이 나왔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 달력이 나왔습니다. '신축년에는 맛있는 한해 되세요' 컨셉으로 '붕그랭이' 요리학교 사진으로 달력을 제작되었는데 달력에는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생신이 표시되어 있어 매달 삼촌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음 편히 얼굴보며 대화 할 수 있음 좋겠습니다.



♫ 저탄소인증 생태관광프로그램 '다 같이 돌아 동네한바퀴' 진행

10월 9일~10일 선흥청년회와 선흥생태관광 사무국과 함께 관광서비스 최초 저탄소인증 생태관광프로그램 '다 같이 돌아 동네한바퀴'를 함덕, 선흥, 북촌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여 탄소를 줄이고 마을운동장에서 캠핑을 하며 저탄소 실천 목표를 세우고 맛있는 음식도 직접 로컬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 먹었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며 진행된 1박 2일 프로그램, 지친 일상에 조금이나마 활력이 되었답니다.



♫ 선흥생태관광, 여행에 재미를 더하다

'걸go!, 그리go!, 찍go!' 드디어 제주어 빙고가 제작되었습니다. 책자와 손수건 그리고 작은 엽서세트로 제작되어 프로그램 진행함에 있어 재미를 더했습니다. 제주어 빙고를 통해 동백동산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보시면 재미가 두배!!!!



♫ 선흥동동 친구들...

- #제주고사리삼
- #두점박이사슴벌레
- #팔색조

작년 주민간담회(원탁회의)를 통해 동백동산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 올하는 제주고사리삼, 두점박이사슴벌레, 팔색조를 이용한 굿즈를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된 인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주형 마을 만들기 워크숍 진행

선홍 마을은
제주형 마을 만들기 워크숍을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1,2차 워크숍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공유와 마을자원 찾기를 통해 우리 마을에 있는 자원들을 살펴보고 대표자원을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3,4차에서는 2차 때 선정된 선홍리 대표자원들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주민들이 함께 의논하고 토론했으며 공유하는 시간과 타 지역 선진지 마을인 남원읍 동백마을에 가서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모여 공유하지 못했지만 워크숍에 참여한 주민들은 선홍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공유했습니다.

의견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 주민 다목적 문화시설 조성, 마을 내 공고근로 확대, 체험농장운영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공동 가공시설 조성, 쓰레기 재활용센터 마련, 마을내 공동목욕탕 조성, 마을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선홍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운영, 동백동산 관망시설 조성, 주민교육 및 견학, 습지관리 방법교육, 동백동산 버섯도감, 제주고사리삼 보전을 위한 체계적 단체조직, 마을사업 운영조직 조성, 함덕 하나로마트에서 선홍간 버스노선 단축 및 정류장 개설,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선주민과 이주민들의 소통의 자리 마련, 마을내 주차장 조성, 지역주민 해설사 양성교육, 마을축제, 체험시설 다양화 및 로컬푸드장 마련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 마을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견들은 과제별로 당장 시급히 해야 할 것과 실행 가능한 것, 마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효과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하나 실행되어 주민들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마을이 되도록 희망을 가져봅니다.



청년회 활동

10월 25일, 11월 15일, 11월 29일 청년회가 동백동산습지센터 삼거리 예초작업을 했습니다. 말끔해진 입구에 동백동산습지센터로 들어오는 길이 즐겁습니다.



/ 색깔 동동 / 선흥1리 로캅스 프로그램



로캅스 상품은 지역(local)과 여행(vacance)이 조합된 단어로 지역주민과 함께 체험을 통해 농촌마을만의 특별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선흥은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색깔을 통한 가족형 여행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총 2회로 진행되었고 삼촌밥상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 소식 알립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 추가 모집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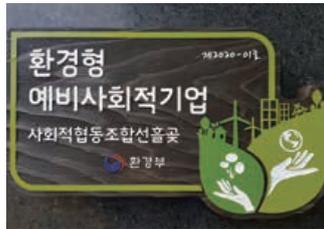
2명이 신규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조합원은 173명입니다.

- 신규 조합원 명단: 장은영, 김현성

사회적협동조합 선홍꽃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즐거운 소식

- 지역사회공헌형인 제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이어 환경부에서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사회적 목적에 공헌할 수 있도록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공동홍보 물품인 지정현판을 배부받았습니다.
- 보전사업으로 10월30일 동백동산 일대에 서식하면서 토종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유해식물 제거 작업과 함께 이성권 강사님을 모시고 주민들에게 외래종식물의 유해성과 토종식물의 서식지 훼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추억의 사진 찍기

- 주민복지사업으로 지난 7월달 1차에 이어 10월에 (오태지·김보순 어르신부부, 고병문·김춘자 어르신부부, 부남해·박인순 어르신 부부)와 함께 반뫓, 먼물깎에서 바라봄 사진관 나종민 사장님의 재능기부로 2차 추억의 사진 찍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삼촌 ~~ 생신 축하드립니다!

올해 나은 햅쌀 드시고 건강하세요!



10월 오태지(양8/음8.22), 안광옥(양25/음9.9)
서갑점(양26/음9.10)

11월 김순복(양5/음9.20), 부인옥(양10/음9.25)

12월 고일랑(양13/음10.29)
김인자(양15/음11.1), 양옥재(양21/음11.7)
강희선(양24/음11.10), 이재복(양24/음11.10)
고성균(양25/음11.11), 이경재(양27/음11.13)
홍태옥(양27/음11.13)